

‘꿈’ 구현방식으로 본 「조신설화」의 현대적 변용

안 민 정
(선문대학교 강사)

- I. 머리말
- II. ‘꿈’ 구현방식으로 본 「조신설화」
- III. 「조신설화」의 현대적 변용
 - 1 소설 『꿈』과 영화 『꿈』
 - 2 영화 『인셉션』
- IV. 문학사적 의의
- V. 맺음말

<국문 요약>

본 연구는 ‘꿈’의 구현방식을 통해 「조신설화」의 현대적 변용을 고찰하였다. 문학에 있어 ‘꿈’이 주는 의미는 시간과 공간을 점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과 항상 비교하여 고찰되어야 할 대상이다. 고전소설의 독자나 영화 속 관객은 공간을 지각함과 동시에 자신의 관념 속에 존재하는 시간성을 토대로 공간이 재구축된다. 시간과 공간을 동시에 점유하면서 환상성을 창출하는 서사장치는 대표적으로 ‘꿈’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고전문학 속 ‘꿈’모티브는 「조신설화」에서 시작된다고 보았다. 「조신설화」를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여정을 그린 작품이라 전제하고 「조신설화」라는 원천 텍스트의 변모과정을 고찰하였다. 그래서 「조신설화」가 수용된 이광수의 중편 소설 『꿈』에서는 꿈속 세계를 통해 현실세계의 비극적이고 잔인한 면모를 보여줌으로써 입몽 전의 욕망의 허무함을 생로병사와 가난, 이별 등의 현실 삶의 고통을 통해 조신 스스로의 세상을 살아가는 주체의식을 가지게 한다고 보았다. 소설을 바탕으로 영화화 된 배창호 감독, 이명세 극본의 『꿈』에서는 ‘꿈’모티브가 단선적이고 일회적인 삶을 여러 번 살게 해주어 ‘죽음’에 임박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찾게 해주는데 조력하고 있음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꿈’모티브가 중국에 추구한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여정을 그린 영화 『인셉션』에서는 고소설에서 모티브 가져온 문화 콘텐츠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과거 원형 콘텐츠에서 ‘꿈’을 통하여 자아정체성까지 분화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즉 ‘꿈’모티브 변형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영화 『인셉션』의 경우는 무한히 증식되는 꿈속의 꿈꾸어진 존재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암시함으로써 주체도 객체도 그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는 세계를 보여주고 있었다.

「조신설화」를 바탕으로 현대적 변용이 된 작품들은 대부분 사건이 발생하고 ‘꿈’을 모티브로 항상 자아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에 봉착하게 된다. 원천 텍스트인 「조신설화」 역시 꿈으로 들어갔다가, 온갖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린 후, 꿈에서 깨어나 이 일생의 부귀영화가 헛된 것임을 알게 되고 최종적으로 자아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된다. 꿈을 깬 후 주인공들은 꿈과 현실의 아슬아슬한 경계에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에 봉착하게 된다. 결국 「조신설화」의 ‘꿈’ 구현방식의 현대적 변용은 현실세계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며 그것이 자아의 정체성에 대해 깊은 통찰을 요구하는 방향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조신설화」의 현대적 변용은 시간적 역행구조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을 ‘꿈’모티브를 통해 나타냈다는 점에서 구성적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주제어: 꿈, 현실, 조신설화, 현대적 변용.

I. 머리말

본 연구는 ‘꿈’의 구현방식을 통해 「조신설화」의 현대적 변용을 고찰하고자 한다. 문학에 있어 ‘꿈’이 주는 의미는 시간과 공간을 점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과 항상 비교하여 고찰되어야 할 대상이다. 모든 서사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두 요소가 함께 작동한다.¹⁾ 사건이 필연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발생하며, 특정한 공간을 점유한 채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볼 때, 모든 서사는 시간과 공간을 통합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시간과 공간은 서사를 구성하는 주요인일 뿐 아니라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고전소설의 독자나 영화 속 관객은 공간을 지각함과 동시에 자신의 관념 속에 존재하는 시간성을 토대로 공간이 재구축 된다. 이때 ‘환상성’이 창출되는 계기가 되는데 시간과 공간을 동시에 점유하면서 환상성을 창출하는 서사장치는 대표적으로 ‘꿈’을 들 수 있다.

‘꿈’ 모티브를 통해 주제의식을 드러내는 작품들은 고전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자주 찾아볼 수 있다. 또 꿈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와 해석이 있는데 정신분석학적으로 연구한 사람으로는 지그문트 프로이드(Sigmund Freud)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는 꿈을 무의식의 소산으로 정신에 숨겨진 의미를 그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보았다. 동·서양에서 꿈에 대해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지만 꿈을 통해 현실을 투영해 볼 수 있다는 점은 공통적인 의견이다. 또 꿈은 현실의 원칙이 아니라 쾌락의 원칙이 지배하는 상상계로의 진입을 가능케 하는 환상의 입구이다. 물론 ‘꿈’이 그와 같이 환상의 입구로서만 기능하는 것은 아니다. 꿈은 또한 환상의 출구로서 기능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환상계로의 진입은 ‘꿈’을 통해 가능해진다.

본 연구에서는 고전문학 속 ‘꿈’ 모티브는 「조신설화」에서 시작된다고 본다. 『삼국유사』에 수록된 이 작품은 승려인 일연의 영향으로 불교

1) 이정원(2002), 『공간의 시학』, 한국소설학회, pp.94~99.

적 사유체계에 주목하여 인생의 허망함을 그렸다는 논의가 많다. 하지만 본 연구는 ‘꿈’을 중심으로 「조신설화」 현대적 변용에 대한 논의이다. 즉 「조신설화」를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여정을 그린 작품이라 전제하고 「조신설화」라는 원천소스의 변모과정을 고찰하고자 한다. 그래서 「조신설화」가 수용된 이광수의 중편 소설 『꿈』(1947)²⁾과 이 소설을 바탕으로 영화화 된 배창호 감독, 이명세 극본의 『꿈』(1990)을 통해 환상성의 현대적 수용을 고찰할 것이다. 다음으로 ‘꿈’ 모티브가 중국에 추구한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여정을 그린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인셉션』(2010)을 통해 ‘꿈’ 모티브가 주는 현대적 의미도 함께 논의해 보고자 한다.

II. ‘꿈’ 구현방식으로 본 「조신설화」

‘꿈’이 주는 서사적 모티브를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조신설화」나 『구운몽』 등 몽유록계 소설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현실의 경험법칙과 인과적 논리성으로 판단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꿈’ 모티브는 초자연적이고 상상적인 세계를 실재화 할 수 있는 전통적인 환상 양식으로 사용되어 왔다. 국문학계에서는 「조신설화」를 몽자류(夢字類)소설의 시초로 보고 있다.³⁾ 「조신설화」는 『삼국유사』, 「탐상」 ‘낙산이대성 관음 정취 조신(洛山二大聖 觀音 正趣 調信)’편에 포함되어 있는 설화로 ‘꿈’을

2) 이광수는 「꿈」이라는 제목으로 단편소설과 중편소설 두 편을 발표하였다. 단편소설은 1939년 『문장』에 발표하였는데 이 작품은 조신설화와는 영향관계를 찾기 어렵다. 후에 중편소설 「꿈」을 1947년에 발표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다루는 내용은 이광수의 중편소설 「꿈」임을 밝혀둔다.

3) 조운제는 한국문학사에서 조신 설화를 우리나라 소설의 초기 단계로 보기도 하였고, 장덕순은 조신 설화를 고려시대 서사문학 가운데 소설로 분류하고 “<조신의 꿈>은 결국 소설이 갖추어야 할 조건을 모두 구비하고 있다. 이것을 소설이 아니라고 부정할 근거는 없다”고 하였다. 장덕순(1977), 『한국문학사』, 동화문화사, P.152.

구성상의 특징으로 하고 있다. 온갖 세상 부귀영화와 고통을 경험한 후, 꿈에서 깨어나 인생의 부귀영화가 모두 헛된 것임을 깨닫는 것이다. 그러나 불교적 색채보다는 조신자체의 인간적인 면모에 관심을 두어 개인적인 깨달음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우리 몽유록계 소설도 마찬가지로, 심의(沈義)의 『대관재몽유록(大觀濟夢遊錄)』을 보면, ‘선잠 속에 큰 왕국에 이르러 벼슬하고, 결혼까지 하며 긴 세월을 보내지만 깨어보니 일순간이었다’⁴⁾라는 이야기가 있다. 또 당나라 전기소설인 심기재(沈既齋)의 『침중기』에서도 50년 영화도 한 순간에 불과하며 “주인이 짓고 있던 기장밥은 아직 뜬이 들지 않고 모든 것이 그대로인 촌시로구나”⁵⁾라는 탄식처럼 이노생(盧生)의 꿈도 파란만장한 일생을 ‘꿈’을 통해 순간에 압축시키고 있다. 「남염부주지」에서도 주인공 박생이 염부주 염마왕을 만나 음양귀신의 도를 이야기하고 선위문을 받았다. 그 이후, ‘문을 나서 수레에 올랐는데 말굽이 진흙에 붙어 수레가 넘어지자 잠이 깨어 눈을 뜨고 주위를 보니 책들은 그대로 상에 던져져 있고, 등불은 아직도 가물거리고 있었다’⁶⁾는 이야기 속에서도 한 순간의 ‘꿈’이 평생의 시간을 압축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신설화」 속의 ‘꿈은’ 작가 일연에게서, 주인공인 조신에게서 ‘갈등의 해소창구’의 역할을 하고 있다.⁷⁾ 신성성이 유지되던 신화시대에는 주인공이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고 뜻한 바를 모두 이뤄낼 수 있어 소망이 충족되는 공간 설정이 서사구조상 필요치 않았다. 그러나 소설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작가의 의식이 현실화되었으며, 서사구조의 제재를 현실에서 취하고자 하였을 때 ‘꿈’이라는 장치는 불가능한 상황의 충족이 가능하게 되는 역할로 기능하게 되었다. 결국 ‘꿈’은 공간설정의 사실주의적 소

4) ‘아직도 그의 곁에는 병든 아내가 신음하고 있었고 잔등(殘燈)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遽然覺則腹漲如鼓殘燈欲翳病妻臥側呻吟而已].’

5) ‘主人蒸黍未熟觸類如故.’

6) ‘既出門挽車者蹉跌覆轍生仆地驚起而覺乃一夢也開目視之書冊拋狀燈火明滅.’

7) 김미령(2005), 「환상공간으로서의 ‘꿈’의 기능」, 『인문학연구』 33집,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P.119.

산이며 인과적 장치의 기능을 하게 되었다. 동아시아 고전문학사에서 ‘꿈’은 핵심적 모티브, 환상계로의 이동수단 가운데 하나로 기능해 왔다. 우리 문학사에서도 서정·서사·교술 등 여러 문학 장르에서 중요한 상상력의 원천으로 작용해 왔다. 또 꿈을 소재로 한 서사문학은 특정한 시대나 특정한 사건을 중심으로 일시적으로 생성된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작가들에 의해 창작되어 그 흐름을 지속해 왔다.

‘꿈’모티브를 이용한 서양의 환상문학 작품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Alice in Wonderland)』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작품의 해석은 ‘꿈’은 주체가 절망적으로 속해있는 실재세계의 모순된 현실세계를 드러내는 징후이므로 ‘꿈’이라는 내적 현상을 관찰함으로써, 꿈과 예술적 영역의 관계성에 주목해야 한다. 이렇게 꿈이 서사문학에서 보편적으로 형상화된 이유는 꿈이 지닌 허망성과 환상성이 문학의 좋은 재료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작가가 ‘꿈’을 작품의 소재로 선택한 것은 꿈이 지닌 이러한 속성이야말로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나타내는 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작가의 이러한 선택은 시대적 상황과도 관련이 있어서 꿈 모티브를 이용한 서사문학은 자아와 세계의 대립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는 중세의 경직된 사회에서 작가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를 여러 가지 유형의 꿈을 통해 표현해도 꿈의 허망성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모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⁸⁾

그러면 ‘꿈’은 단순히 현실을 반영하고 작가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드러내기 위한 장치에 불과한 것인가? 만약 세속적 욕망을 대리 충족시키기 위한 인물로 조신이 선택되었다면 왜 사랑을 성취하고도 현실적 가난을 타개하지 못하고 이별과 죽음을 겪게 되는가. 그것은 인간 내면의 종교적 신념 이전의 ‘자아의 정체성’을 찾으려는 본능에 대하여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한다. 물론 작가 일연이 지닌 불교적 찬술의도를 간과할 수 없지만 본 연구에서는 「조신설화」의 개인적 깨달음이라는 인간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조신 설화」의 줄거리를 ‘꿈’을 중심으로

8) 유종국(1987), 『몽유록소설 연구』, 아세아문화사, P.43.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입몽 전>

- ① 신라시대 세규사(世逵寺)라는 절이 있었는데 그 절의 장원이 명주 날리군에 있었다. 본사에서 중 조신(調信)을 보내 그 절을 관리하도록 했다.
- ② 조신은 김흔공의 딸을 깊이 사모했다.
- ③ 낙산사(洛山寺)의 관음보살(觀音菩薩) 앞에 나아가 그 여자와 인연을 맺게 해달라고 몰래 빌었다.
- ④ 그 여자는 다른 사람과 결혼했고 조신은 관음보살이 자신의 청을 들어주지 않는 것을 원망했다.
- ⑤ 조신은 해가 저물도록 슬피 울며 잠이 든다.

<입몽>

- ⑥ 조신의 꿈에 김씨 남자가 조신에게 사랑해 같이 부부의 연을 맺자고 한다.
- ⑦ 조신이 기뻐하며 고향으로 돌아가 40여년을 같이 살며 아이 다섯을 두었다.
- ⑧ 삶은 점점 가난해지고 그들 부부는 늙고 병들었다.
- ⑨ 다섯 자녀는 사방으로 다니며 구걸하며 연명한다.
- ⑩ 명주 해현령을 넘을 때 큰아이가 굶어 죽어 땅에 묻었다.
- ⑪ 열살 된 딸이 구걸하다 개에 물려 아픔을 호소한다.
- ⑫ 부부는 탄식하며 헤어짐을 약속하고 울며 작별한다.
- ⑬ 각각 아이 둘씩을 데리고 아내는 고향으로 조신은 남쪽으로 떠난다.

<각몽>

- ⑭ 부부가 작별하고 길을 떠나려 할 때 조신은 잠에서 깨었다.
- ⑮ 타다 남은 등잔불은 깜박이고 밤은 깊어가고 있었다.
- ⑯ 아침에 보니 수염과 머리가 하얗게 세었고 탐하는 마음이 사라졌다.
- ⑰ 관음보살에게 자신의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쳤다.
- ⑱ 꿈에서 아이 묻은 곳을 파보니 돌미륵이 나와 가까운 절에 모셔두었다.
- ⑲ 사재를 털어 정토사를 창건하고 부지런히 도를 닦았다.
- ⑳ 그가 후에 어찌되었는지 모른다.

꿈속 세계의 이야기는 후대 『구운몽』이나 『금오신화』 가운데 「남염부주지」와 「용궁부연록」에서 가장 많이 드러나 있다. 그러나 꿈의 형식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 작품 중에서 「조신설화」속 조신의 모습이 주인공들 중 가장 비참하게 드러나고 있다. 「조신설화」는 ‘꿈’을 형상화한 초기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꿈속 세계에서 여러 참혹한 현실을 겪게 되자 각몽 후 승려로서의 종교적 삶에 귀의하게 된다는 내용은 자세히 살펴보면 종교적 삶을 강조하는데 목적을 둔 것이 아님을 볼 수 있다. 다음은 「조신의 꿈」 말미에 등장하는 일연의 찬(讚)이다.

논평해서 말해 보면, 이 조신의 이야기를 읽고 나서 책을 덮고 지난 일을 생각해보면 어찌 조신의 꿈만이 그렇겠는가. 지금 모든 사람이 속세의 즐거움만 알고 기뻐하고 있으나 이것은 단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시를 지어 경계한다.

잠시 즐거울 땐 한가롭더니
어느 덧 근심 속에 늪음이 온다.
한 끼 조밥이 익기를 기다릴 새도 없이
괴로운 일생이 한바탕 꿈이었음을 깨달았도다.
몸 닦음이 잘 되고 못 됨은 자신의 성의에 달렸거늘
홀아비는 미인을 꿈꾸고 도둑은 재물을 꿈꾸네.
때때로 두 눈 감고
청량한 세계에 도달하리⁹⁾

위의 일연의 논평에서 보면 조신은 ‘속세의 즐거움만을 알고 깨닫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하며 괴로운 평생이 ‘한바탕 꿈’이라고 말한다. 불교에서 인생을 고(苦)라 하고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 무아(無我)를 말한다면, 우리는 조신 설화의 주제를 고를 벗어나기 위한 깨달음의 과정이라 볼 수 있다. 꿈을 통해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때, 깨달음도 결국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왔다는 것을 알게 된다.¹⁰⁾ 불교

9) 議曰 讀此傳 掩卷而追繹之 何必信師之夢爲然 今皆知其人世之爲樂 欣欣然役役然 特未覺爾 乃作詞誡之曰 快適須臾意已閑 暗從愁裏老蒼顏 不須更待黃梁熟 方悟勞生一夢間 治身藏否先誠意 鰥夢蛾眉賊夢藏 何以秋來清夜夢 時時合眼到清涼.

에서는 인간에게 고정된 불변의 자아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무아론(無我論)을 주장한다. 후기 현대인의 자아정체성의 문제를 다룬 앤소니 기든스가 현대인들이 이전 시대의 사람들에 비해 자아정체성에 혼란을 느끼고 권태를 느끼는 것에 대하여 자세히 논술한 바 있다.¹¹⁾ 여기서 현대인들은 자아 정체성의 혼란이 인간존재의 근원적인 문제라고 밝히고 있다. 즉 꿈속에서는 현실인 것처럼 기뻐하고 슬퍼하지만, 꿈을 깨고 나서 그것이 현실이 아니라는 깨달음을 얻어 아쉬워하기도 하고 안심하기도 한다. 결국 우리는 인생을 마치 영화를 보는 관람자가 되어서 내가 나를 영화 속의 인물이 아니라 영화 밖에서 영화를 보는 눈으로 자각하며 끊임없이 그 자각에 머물러 있는 것이기 때문에 ‘꿈’이라는 서사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조신설화」의 말미에 나타난 조신의 각몽 후 모습을 살펴보자.

아침이 되자 수염과 머리카락이 모두 하얗게 세어 있었다. 조신은 망연자실하여 세상일에 전혀 뜻이 없어졌다. 고달프게 사는 것도 이미 싫어졌고 마치 100년 동안의 괴로움을 맛본 것 같아 세속을 탐하는 마음도 얼음 녹 듯 사라졌다. 그는 부끄러운 마음으로 부처님의 얼굴[聖容]을 바라보며 깊이 참회하는 마음이 끝이 없었다.¹²⁾

인용문 속 조신의 각몽 후의 모습은 수염과 머리카락이 모두 하얗게 세어 있었다는 점은 많은 시간이 경과되었음을 나타내기 보다는, 꿈속 세상의 괴로움을 단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꿈의 세계는 현실과 무관한 것이 아닌 현실과 연결되었다는 것을 현실계의 늪음으로 꿈속의 괴로움을 표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조신의 꿈은 현

10) 남정희(2013), 『『삼국유사』소재 설화 「조신」이 현대 매체로 수용된 양상과 그 의미』, 『국제어문』 제57집, 국제어문학회, P.207.

11) 앤소니 기든스, 홍기돈 역(1997), 『현대성과 자아정체성』, 새물결, pp.18~21, 남정희(2012), 앞의 논문, P.206 재인용.

12) ‘及旦鬢髮盡白 惘惘然殊無人世意 已壓勞生 如飫百年辛苦 貪染之心 洒然氷釋 於是慚對聖容 懺滌無已.’

실과 분리되지 않았다는 점이 향후 논의할 조신의 정체성과 밀접한 의미를 가질 수 있으리란 전제가 가능하다. 이처럼 꿈속 세계의 성격이 저마다 다르다는 것은 ‘꿈’을 모티브로 하는 「남염부주지」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꿈속 세계로의 이동 후 인간세상의 진리를 깨친 후 염왕이 된다는 내용을 살펴보면 꿈속 세계에서의 경험이 현실세계의 자신의 위치보다 월등히 나은 대우를 받고 있는 데에도¹³⁾ 잘 드러난다. 박생은 스스로의 삶에 대해 회의적이며 불쾌한 감정을 지니고 살고 있다. 즉 항상 자신의 삶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남염부주지」에서의 꿈은 서로 다른 공간을 여는 효과적인 장치로 활용된다. ‘꿈’은 현실계와 환상계는 평범한 상태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간격을 메워주는 기능을 한다. 꿈은 초자연적인 현상을 자연적이고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현실적인 장치로, 서사구조에서 ‘꿈’의 배치는 공간설정을 통한 작가의 현실주의의 소산으로 기능한다.

13) 「남염부주지」를 입몽전-입몽-각몽 후의 순서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특히 입몽부분을 살펴보면 박생은 꿈에 염부주에 이르러 염왕으로부터 환대를 받고 그와 동등한 자격으로 토론하는 상황에 대해 자세시 묘사되어 있다.

<입몽전>

- ① 박생은 유학에 뜻을 두고 있으나 합격하지 못해 늘 불쾌한 감정을 품고 지내다.
- ② 불교나 무속에 대해서 회의적이며 일리론(一理論)을 지어 자신을 깨우치며 지내다.
- ③ 주역을 읽다 잠들다.

<입몽>

- ④ 꿈에 염부주에 이른다.
- ⑤ 염왕으로부터 환대받다.
- ⑥ 염왕과 무속·불교·귀신·정치 등에 대하여 토론하다.
- ⑦ 염왕으로부터 선위를 제의받다.

<각몽 후>

- ⑧ 돌아오는 길에 수레바퀴가 넘어져 놀라 꿈을 깬다.
- ⑨ 죽음을 예감하고 집안일을 정리하다.
- ⑩ 몇 달 뒤 병을 얻어 죽다.
- ⑪ 이웃사람의 꿈에 신인이 나타나 박생이 염왕이 되리라 예언하다.

Ⅲ. 「조신설화」의 현대적 변용

1. 소설 『꿈』과 영화 『꿈』

이광수(李光洙:1892~1950)는 1939년 『문장』지에 발표한 단편소설 『꿈』 이후 1947년 면학서관에서 동일 제목으로 『삼국유사』에 실린 「조신설화」를 소설화하여 중편으로 간행하였다. 학계에서는 1930년 말부터 시작되었던 그의 친일행각에 대한 죄의식을 소설 속에 그리고 있다고 평가한다. 결국 시대적 상황과 결부하여 조신의 꿈을 통해 자신이 앓고 있는 고뇌와 정체성을 이야기하려고 하였다. 그의 전기적인 사실과 비교해 볼 때 단편소설 『꿈』에 드러나는 ‘나라는 주인공은 꿈속에서 사랑해서는 안 되는 사람을 만나 영혼의 홍역을 앓는 인물을 그렸는데 이 작품을 습작으로 본격적인 ‘꿈’모티브의 작품을 썼다고 볼 수 있다. ‘꿈’모티브를 중심으로 중편소설 『꿈』의 줄거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입몽전>

- ① 낙산사 승려 조신은 우연히 김태수 혼공의 딸 달례를 만나 절벽에 핀 철쭉꽃을 꺾어 준다.
- ② 그 후로 조신은 달례를 잊지 못하고 용선화상에게 달례와의 인연을 맺어 주기를 간청한다.
- ③ 용선화상이 조신을 불쌍히 여겨 법당에서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에게 염불하라는 분부를 내린다.
- ④ 염불에 지쳐 조신은 잠이 든다.

<입몽>

- ⑤ 화랑 모례와 약혼한 사이인 달례가 법당으로 들어와 같이 살기를 간청한다.
- ⑥ 도망쳐 가는 도중 동료 스님인 평목이 나타나 김 사또의 분노를 전하며 돌아갈 것을 요구하나 조신은 거절한다.
- ⑦ 조신과 달례는 태백산 깊숙한 곳에서 농사를 지으며 아들 미력과 칼보고, 딸 달보고와 거울보고를 낳아 행복한 나날을 보낸다.

- ⑧ 15년이 지난 어느 날 평목이 나타나 화랑 모례의 추적을 알리며 조신의 딸을 달라고 협박한다.
- ⑨ 참다못한 조신은 분노하여 그를 죽이고, 동굴 속에 시체를 숨긴다.
- ⑩ 어느 날 원님 일행과 서울 손님(화랑모례)이 사냥 차 나와 조신의 집에 거쳐하다가 동굴 속에 있는 살해된 평목의 시체를 알아본다.
- ⑪ 조신은 온 식구를 데리고 도망을 가는데, 도망 중에 아들 미력이 심한 열로 죽는다.
- ⑫ 모례의 추적을 받아 조신과 달레는 모례의 손에 잡힌다.
- ⑬ 조신은 자살을 결심하고 모례는 달레를 사살시킨다.

<각몽>

- ⑭ 조신이 사형을 당하기 직전 용선화상이 조신의 꿈을 깨게 한다.
- ⑮ 조신은 이때부터 일심으로 수도하여 낙산사성(洛山四聖)이라는 네 명승 중에 한 분인 조신대사가 되었다.

「조신설화」와는 달리 중편소설 『꿈』은 달레와 조신이 15년 동안의 삶을 행복하게 묘사하고 있다. 설화와는 달리 춘원은 개인적 깨달음이나 해탈보다는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기까지의 악연의 연속, 예기치 않은 기화(奇禍), 우발적 살인으로 인한 비참한 상황이 묘사되고 자신의 삶에 내재된 불가항력적 요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조신은 사형을 당하기 직전 극한의 공포에 좌절하는 나약한 존재로 그의 내적 갈등이 특히 세밀하게 묘사되고 있다. 특히 평목이라는 등장인물을 통해 비극적 삶의 파국을 절실히 보여주고 있다. 즉 꿈속 세계를 통해 현실세계의 비극적이고 잔인한 면모를 보여줌으로서 입몽 전 욕망의 허무함을 가난, 이별, 늙고 병듦 등의 현실 삶의 고통을 통해 조신 스스로의 세상을 살아가는 주체의식을 가지게 하고 있다.¹⁴⁾

14) 「조신설화」에서는 그토록 원하는 여인과의 사랑이 가난으로 인해 허무해지고 영원한 이별을 하게 되는 점은 독자들로 하여금 쉽게 공감을 얻기가 어렵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소설 속에서의 조신은 고통에도 굴하지 않고 같이 살고 같이 죽자는 의지적인 인물로 변모하게 된다는 점은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다.

1990년 배창호, 이명세 극본의 영화 『꿈』은 『삼국유사』 설화를 원전으로, 이광수의 소설 「꿈」을 원작으로 하여 만든 영화이다. 영화 『꿈』은 「조신설화」나 소설 『꿈』의 줄거리 구성방식인 입몽전-입몽-각몽 순서와는 달리 첫 장면은 늙은 조신의 모습으로 시작된다. 줄거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① 낙산사에 어느 늙고 병든 절인(조신)이 찾아와 불상 앞에서 회한의 눈물을 흘리며 과거를 회상한다.
- ② 젊은 날의 조신은 낙산사 승려이다.
- ③ 어느 날 귀족가의 규수 달례가 절을 방문하는데 그녀의 미모에 조신은 마음을 건잡을 수 없게 된다.
- ④ 번뇌에 빠져든 조신은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목욕 중인 달례를 범한다.
- ⑤ 달례는 처음에는 모례라 생각하고 받아들이지만 나중에 조신인 줄 알고 어쩔 수 없이 조신과 함께 마을을 떠나 가정을 꾸린다.
- ⑥ 아이 둘까지 낳고 염색집을 경영하지만 조신은 달례의 마음까지 소유할 수는 없다. 달례는 일부러 점원과 사랑을 나누면서 그를 괴롭힌다.
- ⑦ 조신을 찾아온 옛 동료 스님 평목이 조신을 위협하고 달례를 탐내자 그를 살해한다.
- ⑧ 한편 모례가 조신의 뒤를 쫓으니 조신은 모례의 눈을 베고 일가족이 도망한다.
- ⑨ 굶주림에 지친 조신의 어린 아들 미력이 식량을 훔치다 맞아 죽는다.
- ⑩ 식구들을 위해 달례는 몸을 팔아 연명하고, 문둥병을 얻는다.
- ⑪ 문둥병에 걸린 달례는 모례의 딸인 달보고를 절에 맡기고 나환자촌에서 죽는다.
- ⑫ 오랜 세월이 흘러 조신은 용서를 빌기 위해 달례를 찾지만 그가 마주 한 것은 달례의 사망소식과 그녀가 남긴 노래뿐이다.
- ⑬ 홀로 남은 조신은 해변가에 살면서 달례의 조상을 만들어 명복을 빈다. 이런 그에게 칼을 찬 모례가 찾아오지만 세월의 흐름 속에 용서한다.
- ⑭ 다시 절을 찾아온 늙고 병든 백발의 조신은 불당 앞에 쓰러져 운다.
- ⑮ 그러나 그것은 한바탕 꿈이었다. 지난 밤 꿈처럼 아름다운 달례가 절에 오지만, 젊은 조신의 마음에는 전혀 동요가 없다.

영화 『꿈』은 인간의 욕망, 특히 애욕(愛慾)으로 인한 인간의 번뇌를 잘 형상화하고 있다. 이광수의 소설 「꿈」은 원전 「조신설화」에 비해, 등장인물을 더 등장시켜 주인공 조신의 죄의식과 이로 인한 공포, 그리고 살인과 발각 등 비극적 사건을 강조하였다. 여기에 영화 『꿈』은 주인공 조신과 달례의 어긋나는 사랑, 조신의 욕망의 근원이던 달례가 매춘부로, 또 문동병 환자로 전락하게 되는 상황 설정으로 더욱 강렬한 비극으로 이르게 하고 있다. 영화는 불교식 깨달음을 얻고 인간의 삶의 무상함을 깨달아가는 과정을 그린 것이 아닌 애욕과 소유욕 사이에서 갈등하며 자신을 찾아가는 한 인간에 초점을 두었다고 볼 수 있다.

「조신설화」의 현대적 변용 작품들은 작가와 감독의 특질이 서로 융합되어 불교적 깨달음을 얻는 조신이 아니라 한 개인으로서의 조신을 중점적으로 다루게 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설화나 소설 속에서는 깨달음의 길로 이끌기 위해 관음보살이나 노스님이 조력자의 역할을 하는데 영화 속에서는 그런 매개체 없이 스스로의 꿈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영화가 보여줄 수 있는 미학적 효과를 ‘꿈’을 통해 적극 활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즉 ‘입몽-각몽-입몽 전’이라는 3단계 과정을 통해 영화적으로 각색·변용하고 있다. 다음은 영화 말미에 삽입되는 달례의 노래이다.

세상일 즐거워 한가롭더니
고운 얼굴 남몰래 늙어졌다네.
서산에 해지기를 기다리느냐
인생이 꿈같음을 깨달았느냐.
가을 날 하룻밤 꿈 하나로
어찌 하늘에 이르리오.

이 노래는 「조신설화」의 마지막에 일연이 삽입한 내용과 유사한 것으로 욕망에 사로잡힌 조신에게 ‘꿈’을 통해 깨달음의 어려움을 말하고 있다. 허구적 이야기는 윤리를 명시하지 않아도 윤리성을 드러낸다. 그 예

의 하나는 이야기의 종결구조다. 죽음으로 끝나는 종결은 미지의 죽음에 대한 윤곽을 부여하며 무(無)앞에서 느끼는 불안을 무디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¹⁵⁾ 「조신설화」가 여러 장르로 변용되도록 만든 요소는 ‘꿈’이라는 소재이다. ‘꿈’을 소재로 한 작품이 이렇듯 연쇄적인 변용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단선적이고 일회적인 삶을 ‘꿈’을 통하여 여러 번 살게 해주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죽음에 임박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과거로 돌아가지 못함을 한탄하기 보다는 ‘꿈’이라는 현실계의 단절을 통해 자아를 찾기 적합한 소재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영화 『인셉션』

사람들은 일상적인 삶 속에서 시간과 공간에 대하여 의문을 품지 않는다. 우리에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이란 영원하고 무한한 것이며, 순간적이고 유한한 것은 무의미한 것이라는 도식에 매우 익숙하다. 그러므로 일장춘몽(一場春夢)이나 백일몽(白日夢)이라는 단어에 드러나는 ‘꿈[夢]’의 공통점은 인생의 덧없음을 암시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 살핀 문학 작품 속에서 이러한 존재론적 한계를 초월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이 숨어있는 것은 인간의 유한성을 언제나 자각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때문에 영화라는 영상물 역시 문학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유한성을 넘어서기 위한 일환이라 볼 수 있으며 ‘환상성’이라는 서사방식을 동원하여 형상화시키기에 매우 용이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세계를 바라보며 상상적 세계를 구축하려는 욕망이 ‘꿈’으로 나타난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크리스토퍼 놀란(Christopher Nolan)의 2010년 작 영화 『인셉션』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통합의 형식이 ‘꿈’으로 형상화 된다. 관객은 이 공간과 시간을 지각하고 자신의 관념 속에서 재구축한다. 꿈과 현실사이의 모

15) 김유석·이승하(2010), 「서사적 정체성의 현대적 의의」, 『인문과학연구』 29. 상명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P.44.

호함은 여러 단계의 꿈을 통해 나타난다. 영화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변 가에 쓰러져 있는 한 남자의 등장으로 이야기는 시작된다. 그는 한 노인(사이토, 켄 와타나베 분)의 저택으로 옮겨지게 되고 바로 그 다음 장면으로 코브의 직업에 대한 이야기가 그려진다. 주인공 돔 코브(Dom Cobb,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분)는 무의식 침탈을 막는 국가 기관의 용원임과 동시에 생각을 훔치는 일을 하는 도둑이기도 하다. 즉, 꿈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주입시키기도 하고 훔치기도 하는 꿈 전문가이다.

‘드림머신’이라는 기계를 통하여 자신의 팀원들과 함께 대상인 꿈속에 들어가며 꿈을 공유할 수 있다. 코브는 꿈에 대한 연구를 함께 진행하는 아내 멜의 죽음에 대해 누명을 쓰고 아버지와 아이들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그에게 ‘사이토’라는 거물 기업가가 찾아와 경쟁기업의 상속자의 꿈속에 들어가 무의식을 심는 일명 ‘인셉션 작전’을 의뢰한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은 경쟁기업가의 상속자인 ‘로버트 피셔(킬리언 머피 분)’의 꿈속으로 들어가고 꿈속의 생각을 심기 위해서는 더욱 깊은 꿈의 심연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것은 꿈속에서 다시 꿈을 꾸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한편 팀원들은 꿈을 현실세계와 똑같이 만들기 때문에 그들이 만든 꿈의 세계에서 다시 현실로 돌아오려면 자살하거나 ‘킵’이라는 일종의 물리적 충격을 통해 깨는 방법을 시도해야 한다. 꿈속 세계에서 꿈과 현실이 모호해지는 상황에 노출될 것에 대비하여 그들은 ‘토템’이라는 물건을 가지고 다닌다. 코브의 토템은 작은 팽이 모양으로 만약 그곳이 현실이라면 팽이는 돌다가 멈추지만 꿈이라면 팽이는 계속 돌아간다. 이들 통해 그들은 자신이 있는 장소가 현실인지 꿈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코브의 팀은 꿈을 꾸는 당사자의 내면으로부터 작전 도중에 공격을 받게 되어 사이토가 중상을 입는다. 그는 깨어나지 못하는 상태로 ‘림보’상태¹⁶⁾에 빠진다. 이러한 사이토를 구출하기 위해 코브는 림보세계로 뛰어들게 되고 그 다음 장면이 처음 시작인 늪어버린 사이토와 코브가 대면하는 장면으로 이어지게 된다. 사이토에게 상황을 종료시키기 위해 자살을 권유하며 림보의 상

16) 림보(Limbo): 림보의 사전 상 의미는 ‘지옥의 변방’이라는 뜻으로 망각의 중간 상태라는 뜻이다(두산동아대백과사전) 영화에서의 림보의 뜻은 꿈을 꾸는 상태 속에서 죽게 되면 그 꿈을 영원히 빠져 나올 수 없는 것을 뜻한다.

태에서 빠져나오는데 코브는 다시 현재의 상황이 과연 그토록 바라던 현재인지 꿈속의 현재인지 혼란스러워하며 ‘토템’을 돌리며 그 토템은 멈출 듯, 멈추지 않을 듯 돌아가며 영화는 막을 내린다.

『인셉션』의 ‘꿈’에는 단계가 있다. 꿈, 꿈속의 꿈, 꿈속의 꿈속의 꿈, 꿈속의 꿈속의 꿈속의 꿈. 총 4단계의 꿈으로 이루어진다. 꿈속의 시간과 현실의 시간은 단계가 거듭할수록 길어진다. 영화는 림보상태에 빠져 늪어버린 백발노인 사이토에게 코브가 자살을 권유하는 장면으로 영화는 시작한다. 이 모든 꿈속의 시간은 현실의 시간과 다르게 간다는 점에서 착안한 것이다. 특히 이러한 특별한 시간성은 꿈속 시간의 특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즉 공간이 다르면 시간도 다르다는 신화적 모티브가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면, 환상공간으로 분류하는 저승은 이승과 분리되어 있는 공간이므로, 이승보다 저승의 시간이 천천히 흐른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데 ‘무릉도원 모티브’도 무릉도원의 시간이 더 천천히 흐른다는 생각을 잘 말해주고 있다. 이것은 현실계와 환상계는 시간의 차이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으며 ‘꿈’을 통한 환상성 창출요인도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영화 『인셉션』을 비롯한 ‘꿈’을 모티브로 하는 문학작품이나 영화 모두 공통점은 사건이 발생하고 ‘꿈’을 모티브로 항상 주인공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에 봉착하게 된다. 영화 『인셉션』은 ‘꿈’에 대한 영화이기도 하지만 전대에 문학작품이나 영화에 비해 꿈을 소재화 시키며 주인공의 내면을 심층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특히 주인공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여정을 그리고 있다. 고소설에서 모티브 가져온 문화 콘텐츠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과거 원형 콘텐츠에서 ‘꿈’을 통하여 자아정체성까지 분화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인셉션』의 감독 크리스토퍼 놀란은 전작 『메멘토』에서 보여주었던 시간적 역행구조를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꿈’모티브를 통해 나타냈다는 점에서 구성적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또 동서양을 막론하고 꿈속 세계는 현실보다 더욱 사실적으로 묘사되는 경향이 있다.

‘꿈’모티브의 현대적 변용은 꿈속 세계의 사실화에서 나아가 현실이 꿈일지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전화(轉化) 되었다. 어떤 것이 진짜 현실의 코브인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하는 꿈속 세계가 영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영화 『인셉션』은 지금 저 장면이 현실인가, 꿈속인가 의구심을 계속 가지게 한다. 영화 속 코브 역시 현실과 너무도 흡사한 꿈에 익숙해져 꿈과 현실을 구분하기 위해 팽이를 돌린다. 이러한 ‘불안감의 형상화’는 환상성의 서구화된 특성¹⁷⁾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영화가 개봉되었을 때 중국내 미국영화 흥행 역대 순위 3위를 『아바타』와 『2012』에 이어 차지하였는데 중국의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한다면 실로 놀라운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중국 네티즌들은 『인셉션』에 열광하는 이유를 ‘중국인에 익숙한 꿈 이야기’,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천재성과 연출력’, ‘중국인의 감성을 자극하는 테마’로 나누어 분석한 바 있다.¹⁸⁾ 이런 점에서 ‘꿈’을 다양하게 변주하고 컨텐츠화 한다는 점에서 동양과 서양의 구분은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꿈과 현실이 구분되지 않는 영화 속 내용은 『장자』의 ‘호접지몽(胡蝶之夢)’을 연상하게 한다. 장자가 꿈속에서 나비가 되는 꿈을 꾸고 깨어난 뒤 장자가 나비의 꿈을 꾸었는지, 나비가 장자의 꿈을 꾸었는지 구분을 못하겠다는 내용으로 영화 말미에 팽이를 돌리는 장면으로 열린 결말을 내리는 장면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현실과 꿈의 경계가 분명한

17) 로즈마리 잭슨은 환상성의 정의에 대해 기이함을 예로 들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기이함이란 감추어 진 것을 폭로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낮익은 것을 낯선 것으로 섬뜩하게 변형시키는 효과를 갖는 것으로, 환상문학에서 이러한 기이함의 효과는 전혀 낯선 새로운 것이 주는 공포성이 아니라 안전하고 자연적인 것 뒤에 감춰진 모호하고 폐쇄된 영역의 폭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기이함은 이처럼 일상적인 것을 낯선 하기 때문에 어떠한 통일된 현실에 대한 재현도 전복시킨다. 즉 그것은 사물들 사이의 틈새에 스며들어 우리에게 익숙한 세계를 낯설음과 변형된 세계로 뒤바꾸어 버린다.” Rosemary Jackson(2001), 서강여성문학회 역, 『환상: 전복의 문학』, 문학동네, P.31.

18) 신민야·우정권(2012), 「중국 네티즌에게 미국영화 <Inception> 이 호평받는 원인 분석」, 『중국어문학논집』 제73호, 중국어문학연구회, P.501.

것이 좋은가? 분명하지 않은 것이 좋은가? 코브와 멜은 림보에서 깨는 것이 좋은가? 깨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좋은가? 이러한 물음 중 분명한 것은 『인셉션』을 통해 관객들에게 자아라는 ‘정체성’의 깊은 통찰을 요구한다는 점이다.

극중 코브는 ‘인셉션 작전’의 약물 개발자 유서프의 사무실에서 긴 잠을 자는 이들을 본다. 코브는 ‘이들은 얼마나 자주 여기 잠을 자기 위해 오는가?’라는 질문에 유서프는 ‘아니, 그 반대로 그들은 이 꿈을 깨기 위해 여기 온다’라는 이야기를 한다. 장자와 나비의 구분, 꿈과 현실의 구분 이 모든 것은 상대적인 것이며 절대적 의미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꿈’의 종착은 무엇일까. 그것은 ‘죽음’이라 말할 수 있다. T. S. 엘리엇의 「황무지(The Waste Land)」 서문에 등장하는 늙기만 할 뿐 절대 죽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무녀 시빌라가 등장한다. 그녀에게 죽음이 자비이듯 옛 기억을 잃어버린 듯한 늙은 사이트에게 죽음으로써 젊음이 기다리는 현재로 돌아가자는 제의로 영화가 시작되는 점은 영접되는 꿈을 통하여 인간의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IV. 문학사적 의의

「조신설화」를 바탕으로 현대적 변용이 된 작품들은 대부분 사건이 발생하고 ‘꿈’을 모티브로 항상 자아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에 봉착하게 된다. 원천 텍스트인 「조신설화」 역시 꿈으로 들어갔다가, 온갖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린 후, 꿈에서 깨어나 이 일생의 부귀영화가 헛된 것임을 알게 되고 최종적으로 자아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된다. 「조신설화」의 ‘조신’, 『구운몽』의 ‘성진’ 역시 처음 자신의 모습인 스님의 삶으로 돌아가는 장면으로 이야기를 끝을 맺는다. 꿈을 깬 후 주인공들은 꿈과 현실의 아슬아슬한 경계에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에 봉착하게 된다.

자아정체성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요소와 꿈에서 발견되는 공통적인 화소는 ‘화신(化身)’이다. 『인셉션』의 코브 역시 꿈속 세계의 화신을 통해 찾고자 하는 바는 인셉션의 주체자인 로버트 피셔와 똑 코브 자신의 서사적 정체성¹⁹⁾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로버트 피셔에게 아버지 회사를 해체하여야겠다는 생각을 ‘인셉션’을 통해 심어주기 위해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립시키는 것을 도와주는 과정이 그 하나이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아내를 죽이게 만들었다는 죄책감과 대면하기 위함²⁰⁾이 또, 그 하나이다. 주목할 점은 「조신설화」가 수용된 모든 작품이 꿈속 세계에서 직·간접적인 ‘죽음’을 경험하게 한다는 것이다. 「조신설화」에서는 조신의 큰아들을 명주 해현령 고개에 묻고 깨달은 이후에 돌미륵으로 현현하는 모습, 소설 『꿈』에서 조신은 사형을 당하기 직전 느끼는 간접적인 죽음을 겪는 모습, 영화 『꿈』에 등장하는 달레의

19) 서사적 정체성은 폴 리콕르가 제안한 개념으로, “자기 이름으로 지칭된 행동의 주체를, 출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삶 전체에 걸쳐 동일한 사람이라고 간주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에 대한 자문에 “대답은 서사적일 수밖에 없다”고 자답한 데서 본격적으로 이루어 졌다. 단일한 정체성은 존재하기 어렵고 시간의 진행에 따른 행동과 대응 방식, 타인과의 대화 등이 정체성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다. 여기서 ‘서사적’의 의미는 이야기에서 나타나는 행동의 동기와 목적에 대한 수궁할 만한 설명을 내놓는 일이자 시간의 흐름이 정체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이다. Paul Ricoeur, *Temps et récit III*(김한식 역(2004), 『시간과 이야기 3』, 문학과 지성사, P.471, 김유석·이승하(2010), 위의 논문 P.32, 재인용.

20) 코브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죄책감과 대면에 대해 이나경(2012)은 “코브의 근원적인 문제는 아내 멜(Mal)을 죽였다는 혐의를 받고 미국에서 추방된 전적이 아니라, 그 혐의가 실제로는 혐의만이 아니라는 것은 자신만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직접적으로 아내를 살해한 것은 아니지만, 아내가 현실을 버리고 가상의 세계를 선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자신이 심어놓은 생각 탓이라는 죄의식이야 말로, 꿈속에서조차 아이들의 얼굴을 말 그대로 떼뺏하게 ‘대면’하지 못하는 코브가 지닌 트라우마의 실체다.”라고 하였다.(「환상과 현실의 경계에서: 크리스토퍼 놀런 영화에 나타나는 주체의 모색」, 『신영어영문학』 vol.51, 신영어영문학회) 결국 ‘꿈’이라는 가상현실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노력을 한다는 점에서 꿈을 모티브로 한 고전소설과 그 맥을 같이 한다.

죽음과 또 홀로 남은 조신이 달레의 죽음을 추모하는 모습, 영화 『인셉션』에 등장하는 ‘꿈을 깨기 위해 코브와 멜이 나란히 철길에 누워있는 모습과 멜이 50년 동안 꿈을 꾸고 난 뒤 현실을 꿈이라고 생각하여 그 꿈을 깨기 위해 자살하는 모습 속에서 ‘죽음’은 공통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즉 꿈속 서사의 주인공들은 모두 죽음을 겪게 한다. 다음 인용문을 살펴보자.

습관이라는 ‘보호고차’ 속에서 안심하던 개인은 범죄자가 될 때, 광기에 사로잡힐 때, 자신이 하나의 무관심적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자연 앞에 있을 때, 성애를 통해 현재에 몰입되어 있을 때 과거-현재-미래라는 시간의 맥락에서 일탈한다. 여기서 가장 일탈성이 큰 것은 죽음이다. 죽음 이후의 시간에 죽은 자는 더 이상 속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바로 죽음 때문에 시간은 단순히 순차적인 연속이 아닌 종말을 지닌다. 여기서 유한성을 자각하며 삶을 의미있는 것으로 만들어갈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야기 역시 시작과 끝을 갖고 있다. 특히 죽음은 많은 경우 이야기의 종말을 이룬다.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는 삶 속에 부차적인 것들을 자각하는 일이다. 죽음과 마주하는 일은 분산과 산만의 경향을 멈추고 자신의 삶을 하나의 일관된 이야기로 나아가도록 한다. 끈이 있는 이야기들은 끝이 있는 삶이 어떤 과정을 겪으며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 가는지 간접 체험하게 해준다.²¹⁾

꿈속을 배경으로 하는 작품들은 현실적인 논리로는 설명 불가능한 사건이 중심이 된다. 주로 죽음으로 종결을 맺거나 인물이 사라짐으로 귀결된다. 「조신설화」의 현대적 변용작품들은 자아 정체성 회복이라는 큰 주제로 모아질 수 있다. 자아정체성은 자신을 이해하는 일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조신설화」의 ‘꿈’모티브 변형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영화 『인셉션』의 경우는 무한히 증식되는 꿈속의 꿈꾸어진 존재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암시함으로써 주체도 객체도 그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는 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결국 「조신설화」의 ‘꿈’ 구현방식의 현대적 변용은 현실세계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며 그것이 자아

21) 김유석·이승하(2010), 앞의 논문, pp.44~45.

의 정체성에 대해 깊은 통찰을 요구하는 방향임을 알 수 있다.

V. 맺음말

본 연구는 ‘꿈’의 구현방식을 통해 「조신설화」의 현대적 변용을 고찰하였다. 문학에 있어 ‘꿈’이 주는 의미는 시간과 공간을 점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과 항상 비교하여 고찰되어야 할 대상이다. 고전소설의 독자나 영화 속 관객은 공간을 지각함과 동시에 자신의 관념 속에 존재하는 시간성을 토대로 공간이 재구축된다. 시간과 공간을 동시에 점유하면서 환상성을 창출하는 서사장치는 대표적으로 ‘꿈’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전문학 속 ‘꿈’모티브는 「조신설화」에서 시작된다고 보았다. 「조신설화」를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여정을 그린 작품이라 전제하고 「조신설화」라는 원천 텍스트의 변모과정을 고찰하였다. 그래서 「조신설화」가 수용된 이광수의 중편 소설 『꿈』에서는 꿈속 세계를 통해 현실세계의 비극적이고 잔인한 면모를 보여줌으로써 입몽 전 욕망의 허무함을 생로병사와 가난, 이별 등의 현실 삶의 고통을 통해 조신 스스로의 세상을 살아가는 주체의식을 가지게 한다고 보았다. 소설을 바탕으로 영화화 된 배창호 감독, 이명세 극본의 『꿈』에서는 ‘꿈’모티브가 단선적이고 일회적인 삶을 여러 번 살게 해주어 ‘죽음’에 임박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찾게 해주는데 조력하고 있음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꿈’모티브가 중국에 추구한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여정을 그린 영화 『인셉션』에서는 고소설에서 모티브 가져온 문화 콘텐츠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과거 원형 콘텐츠에서 ‘꿈’을 통하여 자아정체성까지 분화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즉 ‘꿈’모티브 변형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영화 『인셉션』의 경우는 무한히 증식되는 꿈속의 꿈꾸어진 존재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암시함으로써 주체도 객체도 그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는 세계를 보여주고 있었다.

「조신설화」를 바탕으로 현대적 변용이 된 작품들은 대부분 사건이 발

생하고 ‘꿈’을 모티브로 항상 자아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에 봉착하게 된다. 원천 텍스트인 「조신설화」 역시 꿈으로 들어갔다가, 온갖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린 후, 꿈에서 깨어나 이 일생의 부귀영화가 헛된 것임을 알게 되고 최종적으로 자아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된다. 꿈을 깬 후 주인공들은 꿈과 현실의 아슬아슬한 경계에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에 봉착하게 된다. 결국 「조신설화」의 ‘꿈’ 구현방식의 현대적 변용은 현실세계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며 그것이 자아의 정체성에 대해 깊은 통찰을 요구하는 방향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조신설화」의 현대적 변용은 시간적 역행구조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을 ‘꿈’모티브를 통해 나타냈다는 점에서 구성적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접수일 : 2013.10.01 / 심사개시일 : 2013.10.08 / 게재확정일 : 2013.10.25

<참고 문헌>

- 김미령(2005), 「환상공간으로서의 ‘꿈’의 기능」, 『인문학연구』 33집,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 김유석·이승하(2010), 「서사적 정체성의 현대적 의의」, 『인문과학연구』 29. 상명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남정희(2013), 「『삼국유사』 소재 설화 「조신」이 현대 매체로 수용된 양상과 그 의미」, 『국제어문』 제57집, 국제어문학회.
- 신민야·우정권(2012), 「중국 네티즌에게 미국영화 〈Inception〉이 호평받는 원인 분석」, 『중국어문학논집』 제73호, 중국어문학연구회.
- 유종국(1987), 『몽유록소설 연구』, 아세아문화사.
- 이나경(2012), 「환상과 현실의 경계에서: 크리스토퍼 놀런 영화에 나타나는 주체의 모색」, 『신영어영문학』 vol.51, 신영어영문학회.
- 이정원(2002), 『공간의 시학』, 한국소설학회.
- 장덕순(1977), 『한국문학사』, 동화문화사.
- Rosemary Jackson(2001), 서강여성문학회 역, 『환상: 전복의 문학』, 문학동네.

Abstract

『Josinseollhwa』 in the Transformation of Classics Seen with the Realization of 'Dream' / An. Min-Joung

This study intends to consider fantasy in the transformation of classics with the realization of 'dream'. In literature, the meaning of 'dream' is the object to be considered always in comparison with reality as it occupies time and space. It is said that in all narrations, "two elements of time and space work at the same time". From the point that events occur according to the flow of time inevitably while occupying a certain space, all narrations can be said to integrate both time and space. In other words, time and space are not only the major factors consisting of a narration but also closely related with each other. Of course, events occurring in the changes of space exclude time as much as possible; however, the readers of the classical novels or audience in the films to be considered in this paper perceive that space and also reconstruct space based on the time which exists in their notions at the same time. And this forms a chance to create 'fantasy', and one of the typical narrative devices which create fantasy while occupying time and space at the same time is 'dream'.

Works that expose their thematic consciousness with the motif of 'dream' can be often found in both classical and contemporary works. And there are a variety of researches and interpretations about dream. One that studied it with psychoanalysis is Sigmund Freud who is widely known for it. He says that dream is the product of unconsciousness, so meaning hidden in our mind can be found from it. In the East and the West, people have different views about dream, but they commonly think that dream does reflect reality. And dream is the entrance of fantasy to the world of imagination that is ruled by the principles of pleasure, not the principles of reality.

Therefore, transferring from the primary world restricted to the principles of

reality to the secondary world of imagination is accompanied by the device of a journey penetrating time • space • memory, and dream works as a major device that passes through that irreversible time and space. Of course, dream does not function only as the entrance of fantasy like that. Dream also functions as the exit from fantasy, too. Thus, entrance to the world of fantasy can be possible with dream.

This study sees that the emergence of the motif of ‘dream’ in classical literature started with 「Josinseolhwa」. Thus, the paper will consider how fantasy gets to be accepted in modern ways with Lee Gwang Su’s novel ‘Dream’ which dramatizes 「Josinseolhwa」 in a modern way and director Bae Chang Ho’s ‘Dream’ which has this novel as its original. Next, with director Christopher Nolan’s movie ‘Inception’ which depicts a journey that the motif of ‘dream’ finds its identity it has pursued in the end, the study discusses the meaning that the motif of ‘dream’ presents in this age.

Key words: dream, reality, 「Josinseolhwa」, transformation of classics.